

서호인의 '소설처럼'



가족과의 거리

매기 오페럴 장편소설 '불벌더위에 대처하는 법'

에서 연일 브리핑으로 강조하는 팬데믹 하에서의 덕목,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러라”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환기시킨다. 우리 가족은 이토록 붙어 있기에 문제가 없는 관계인가? 괜찮은 사이일까? 북아일랜드 작가 매기 오페럴의 장편 소설 ‘불벌더위에 대처하는 법’은 이 시기에 읽을 만한 가족 드라마이자 스릴러다. 예기치 않은 출생의 비밀이 있고, 아버지의 실종이 있으며, 형제자매 사이의 오해와 화해가 있다. 대한민국 지상파의 주말 드라마가 생각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소설에는 런던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의 역사가 있고, 가족의 비밀은 그 역사의 디테일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 소설은 영상이 아닌 소설이 가진 미덕(인물의 심리와 시선의 변화에 따라 너울대는 진술, 지나칠 것 없이 모든 것에 부여되는 상징성, 상상력 너머의 것을 재현하는 정제된 묘사)들이 있다. ‘불벌더위에 대처하는 법’의 스토리상 시간은 나홀로이다. 플롯상의 시간은 수십 년이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실종되고, 흘러진 가족이 다시 모여 사건의 단서를

찾고, 그렇게 찾은 단서를 통해 아버지의 향방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전부이지만, 이야기의 틈새에 가족의 역사는 뻑뻑하게 끼어 있다.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걸 무참히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의 재혼 생활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큰딸, 난독증을 숨기고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막내에 이르기까지 이들 각자의 서사는 가족의 관계를 통해 여러 번 꼬이고, 이따금 풀린다. 그 관계의 시원은 북아일랜드의 지난한 역사에 있었다. 최근까지도(서유럽에서는 드물게) 독립과 자치를 둘러싼 종교적·계급적 갈등으로 유희 투쟁이 있었다. 가족의 비밀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가족의 시작마저 거기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역사가 흠뿌리는 가느다란 물줄기를 피할 도리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물줄기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는 훗날 한 시대를 지배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가 그랬고, 몇 년 전 광

화문의 촛불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우리 곁에 가족은 이 역사 속에서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업데이트할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자연 풍광이 펼쳐진다.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북아일랜드의 외딴섬. 그곳에서 가족은 모두 모여 있다. 굳이 어머니가 슬쩍 손을 들고 나타난다. 그간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속마음을 연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족이 된다. 모두가 위기인 시국이다. 끝을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습에 우울감이 증폭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거대한 역사에 의해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가족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미시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를 둬으로써 가족과의 비사회적 거리는 가까워졌다. 그건 어떤 가족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연결되고, 다시 시작되고, 다시 파스해지며, 다시 곁에 내줄 기회. 오로지 그 기회의 옹운 활양만이 코로나19가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지도 모른다. <시인>

의료칼럼

독감 예방 접종



김혜지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과장

기로 알고 있어 예방 접종을 소홀히 하고 있으나, 2009년 전 세계는 물론 우리를 위해 떼개 하던 신종 플루(신종 인플루엔자) 역시 인플루엔자의 한 종류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호흡기 합병증(주로 폐렴)과 심폐 질환 악화로 인한 것이 많다. 드물지만 호흡기 이외의 중증 합병증으로는 근육염, 횡문근 용해증, 심근염, 독성 쇼크 증후군, 중추신경계 이상, 라이 증후군 등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심장 또는 폐질환, 당뇨, 신기능 이상, 면역 저하와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2세 미만 및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위험군이다. 독감 접종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백신의 종류는 3가와 4가 백신인데, 두 백신의 차이는 예방 범위의 차이이다. 독감 3가의 경우 이전에 많이 활용되던 백신으로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해 예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예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B형 아파가타균이 유행하자 이를 보완한 4가 백신이 만들어졌다. 독감 백신은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고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만성 질환자 등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유사해서 자칫 혼동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독감으로 또는 독감을 코로나19로 오해할 경우 치료에 혼선이 올 수 있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하기 위해 서라도 독감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다. 트윈데믹은 님은 두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것. 즉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가 쌍둥이처럼 함께 대유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백신 기피 현상도 다소 있지만 흔하게 발생하고 무서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독감이기에 점차 국가 예방 접종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되어 생후 36개월부터 만 18세 어린이

및 학생, 만 62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1~3급)은 물론 임신부까지도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독감 예방 접종 시 페렴이나 대상 포진과 같은 예방 접종도 하는 것이 좋는데, 이 두 가지의 감염병의 접종 권장 시기가 비슷하고 전파 경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6개월간 면역이 유지된다. 따라서 9월~10월 중 예방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등 건강 생활 실천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 치료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독감 예방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방역에 철저한 의료기관을 잘 선택해 적정 거리 두기 및 보건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키면서 안전한 예방 접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독감 접종을 위해 건강관리협회 등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KF94 등)를 착용해야 한다.

기고

영화 ‘69세’의 에로스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협동조합 대표

년의 에로스’를,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된 ‘노년 신화’까지 적나라하게 해집어 보여 준다. 즉 ‘고령자는 쓸쓸하고, 외롭고, 무능력하며, 어리석고, 때론 악취를 풍기는, 늙은 사람’이라는 노년 신화가 만들어 낸 음산한 이미지를 보기 좋게 깨부수는 짜릿함을 선사한다. 그 중에서도 ‘노년의 에로스’는 비평의 주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임강독은 “여성 노인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시나리오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화를 통해 노년 여성의 성을 ‘무성에서 깊은 모노톤’으로, ‘투박함에서 세련된 성숙미’로 업그레이드해 연출해 내었다. 그렇게 조형된 효정. 수영으로 다져진 군살 제로의 슬립한 몸매, 곧은 자세의 사뭇한 걸음걸이, 실크 스카프를 매치한 엘레강스한 자태, 단정하고도 단호하게 묶은 배발, 롱 코트의 늠름한 깃 연출, 세상 쿨하게 한 모금 내뿜는 흡연 신, 고발문을 옥상에서 날려 버리는 당당한 투쟁 같은 삶을 피부 밑에 살포시 감춘 그 자제까지도, 나는 그녀에게 반해 버렸다. 영화는 한 여성 노인을 통해, 화장이 없는 얼굴과 백발에서 ‘NO 안티 에이징’을, 상호 존중적 관계 맺음의 최고봉으로 ‘노

글하지 않다. 이런 모습 어디에 노년의 음산함이 느껴지는가? 이토록 매력적인, 에로틱한 69세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효정이기에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시인 동인(기주봉 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현재 그의 집에서 잠정적인 부부로서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다. 동인의 시집은 빛이 바래 ‘냄비 받침’으로 한동안 그 용도가 바뀌어있었지만, 효정이 동인의 시한 구절 “발뺌 한줄기도 감사하게”를 읊조리자, 민들레 흙씨처럼 에로스는 그에게 날아가 싹을 틔운다. 이렇게 깨인 그의 에로스는 사뭇한 부인의 기일을 잊을 만큼의 몰두로, 폭행당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진심어린 모습의 무게로, 깊고 진한 커피의 빛깔과 향을 내뿜는다. 심리학자 니콜라 에이벌은 에로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에로스는 유기체에 존재하는 긴장이다. 에로스는 생명체가 오래 지속되고 한층 더 높은 발달 단계로 나아가 수 있게끔 살아 있는 물질을 통합하여 더 큰 통일체로 만든다. 에로스의 목적은 생명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동시에 보존하는 것”이라고. 효정의 낙점을 받은 동인은 그동안 잠

들어있던 에로스의 감성을 깨운 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고발문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즉 ‘생명체가 오래 지속되고 한층 더 높은 발달 단계로 나아가 수 있게끔’ 연대의 에너지가 생성된 것이다. 기실 효정의 에로스는 남자 친구 동인 뿐 아니라 “다리가 참 이쁘네요!”했던 29세의 성폭행범, “웃음이 좋으세요!”하던 형사에게까지도 어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을 약자로 취급해 성을 유린하고도 “내가 잘해 줬잖아!”하며 죄의식을 못 느끼는 청년, “너무 친절했군요!”하며 무례를 자처하는 남자 형사, 이들의 언행에서 보듯, 노년의 섹슈얼리티를 무시한, 노인 신화에 갇혀있는 한국의 문화는 다분히 문제적이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당사자 효정의 선택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효정과 동인, 각자가 고수해온 삶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한편 그들을 소외시키는 세상을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고발문을 던진 두 노인의 모습은, 임신에 감독의 표현대로 “아름답다”, 그리고 ‘에로틱’하다. 모두가 긍정하고 응원할 수 있는 노년 캐릭터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社說

전두환 재산 끝까지 추적 추징금 환수해야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추징금은 아직도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하지만 이를 환수하기 위해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2003년에 이미 목록이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는 잇그제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 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17년 전 재산 목록을 제출했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미 제출된 재산 목록이 허위라면 민사 집행법 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중 1214억 원만 집행돼 미납금이 991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전 씨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은 아주 미미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검찰 압박이 거세지자 2013년 장남 전재국 씨를 내세워 ‘자진할 의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2003년에 이미 목록이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는 잇그제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 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17년 전 재산 목록을 제출했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미 제출된 재산 목록이 허위라면 민사 집행법 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중 1214억 원만 집행돼 미납금이 991억 원에 달한다.

광주 코로나 확산 ‘공동체 정신’ 절실하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감염원도 재래시장에 이어 사우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어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PC방 등 일부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지침을 조정했다. 집합 금지였던 PC방은 집합 제한으로 하향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원을 집합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연회관 등 집합 제한은 유지되고 직업훈련 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 연습장 등을 다른 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해 집합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는 감소세로 돌아선 타 지역과 달리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누적 확진자 459명 중 절반이 넘

는 230여 명이 무증상 감염자인 데다, 감염원조차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이미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시작된 상태다. 문제는 일부 시민들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비협조 자세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확진자들의 거짓말 등 무책임한 태도 탓이 크다. 실제로 지난날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동 통상을 숨기거나 증상이 있는 데도 다중시설을 드나든 이가 적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위기 때마다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시민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3단계 격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나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의학과를 나왔지만 일반적인 의사들과 달리 공직의 길을 택했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원 연구관 특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제외하고 줄곧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대응 현장을 지켰다. 2015년 메르스 때는 대응 실무를 총괄했지만 사태 확산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아 공직을 떠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의사 출신들에게 물으면 정 본부장은 “K방역의 영웅”으로 보도한 것은 오신들이다. 미국 롬버그는 그를 ‘전염병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질병을 방만한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 본부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눈여겨봐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정 본부장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매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차분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안심시

키는 모습은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머리 감는 시간도 아까워 단발머리 모양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 본부장은 식사 역시 도시락과 밥차로 대신하다 보니 브리핑 때마다 갈수록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한번은 기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냐”고 묻자 “시간보다는 많이 잔다”고 답했다고 한다. 묵묵히 본업에만 충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어록으로 기억된다. 정 본부장은 “K방역의 영웅”으로 보도한 것은 오신들이다. 미국 롬버그는 그를 ‘전염병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질병을 방만한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 본부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눈여겨봐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정 본부장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매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차분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안심시

K방역 영웅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